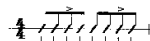


개회예식

515

뜻없이 무릎 꿇는



Capo=3rd
J. Hay, 1891

LLANGLOFFAN: 7.6.7.6.D.

Welsh Hymn Melody

from D. Evans' Hymnau A Thonau, 1865

조금 빠르게 ♩ = 100

1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2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운명에 맡겨사는 그 생활 아니라
추한 자 정케함 이 주님의 뜻이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 듯이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기계서서

주 뜻이 이뤄지 이다 외 치며 사나니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1. 시작송가

은혜로운 빛이여

†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주소서.

⊙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 저무는 이 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전례

2. 오늘의 시편

115편

- 1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 그 영광은 당신의 사랑과 진실로 말미암은 것이옵니다.
- 2 어찌 이방인들로 하여금 ○ “너희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 3 우리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어 ○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 4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 사람이 은불이 금불이로 만든 것,
- 5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 8 이런 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도 ○ 모두 그와 같은 신세가 되리라.
- 9 이스라엘 문중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 10 아론의 문중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11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12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가문에 축복을 내리시고, ○ 아론의 가문에도 축복을 내리시리라.

13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리라.

14 너희와 너희 후손은 ○ 주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여라.

15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 ○ 너희는 모두는 복을 받아라.

16 하늘은 주님의 것이지만, ○ 땅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17 주님을 찬양하는 이는 죽은 자도 아니고 ○ 침묵의 나라에 내려 간 자도 아니고

18 오직 우리가, 살아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찬미한다. ○ 이제로부터 영원히, 알렐루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3. 성서독서

요한 복음서 15:1-1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리

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4. 독서 후 송가

성모 마리아송가

1.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2.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3.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 주님의 이름 기록하십시오.
 4.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5.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6.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7.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8.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5. 말씀 나눔

6. 대도

성찬의 전례

7. 성찬으로의 초대

+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 된 것을 다 떨쳐 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8. 평화의 인사

-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시다.
-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당신의 순수한 얼굴입니다. (포옹으로 인사)

9. 봉헌

+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사오니, 이 빵이 곧 생명의 빵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넝쿨을 주시고 노동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 이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모여들게 하옵소서.

●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주집전자는 성찬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의 성찬기도를 드린다.

10. 성찬기도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나이다.
- +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오 거룩하신 주,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가 차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사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빵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잃었던 길을 되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맞아, 주님의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감격 속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십니다.

+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의 성취하옵소서.

곧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때어 제자들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신앙의 신비와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오나,

●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 마라나타, 창조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일을 이루옵소서.

11. 주의 기도

†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립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 성찬의 나눔

†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하는 친교요,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린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13. 영성체

성체와 보혈을 나눌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빵은 형제(자매)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 아멘

† 이 포도주는 형제(자매)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 ● 아멘

천년이 두번 지나도

조요성 & 전중혁
made by musicday

천년 이 두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것 당신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예요 천년 이 두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것 당신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예요
 당신 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 하나 될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 을 향 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 담게 열매 맺 어
 요 하나 님은 당신 을 통해 그의 마 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 기원해요 천년 이 두번 지나도 당신
 은 하나님의 사랑 이죠 천년 이 가도 영 원 히

14. 영성체 후 기도

† 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며, 장차 올 세계에서 저희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 계셔서 세상 끝 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 아멘

파송 예식

15. 축복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미쁘게 보사 평화 주시길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 아멘

16. 파 송

+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